

로버트 루빈 · 제이콥 와이스버그의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미국》

업적 따로 평가 따로, 김대중과 클린턴의 한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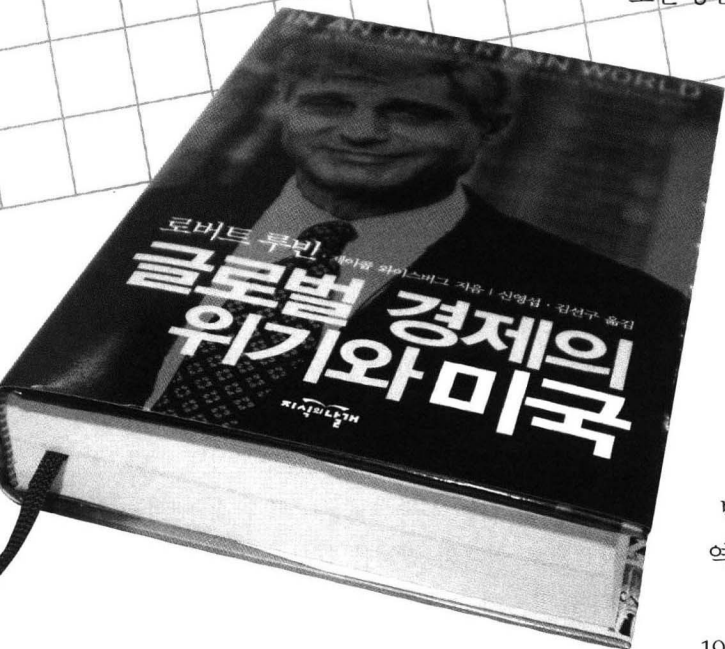
글_최용식

정권의 경제적 업적과 그 업적에 대한 평가 사이에는 격차가 제법 큰 것 같다.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재앙이라던 '환란'을 불러 일으킨 김영삼 정권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관대한 데에 비해, 그 환란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가혹한 편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심지어, 환란 직후에 나타났던 빈부격차 확대, 실업자 양산, 기업들의 줄도산 등은 환란의 직접적인 결과이거나, 적어도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해야 하므로, 그 책임은 당연히 김영삼 정권에게 물어야 했으나, 오히려 김대중 정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 클린턴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루빈의 자서전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미국》(원제 : IN AN UNCERTAIN WORLD)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루빈은 클린턴 정권에서 집권초기 2년 동안에는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국가경제협의회의(NEC) 의장으로서, 그 뒤 4년 반은 재무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미국경제의 변영을 이끈 주역 중 한 사람이다.

사실, 미국경제는 1990년대에 극적인 전환기를 맞았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미국 경제의 중심인 뉴욕 맨하튼을 대표하는 록펠러 빌딩과 미국문화의 상징인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콜롬비아영화사 등이 일본기업에 팔려나갈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선 뒤에는 세계경제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초장기 호황을 누렸다. 특히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초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경제의 성공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런 눈부신 업적은 온전히 클린턴 정권의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1991년에 -0.9%를 기록했다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클린턴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1992년부터이지만, 그 경기상승을 2000년까지 즐기치게 이어갔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1990년대 미국의 경제여건이 과거에 비해서 양호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온갖 시련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경제를 그 뿌리까지 흔들 수도 있었던 각종 금융위기가 여러 차례 엄습해왔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미국》 로버트 루빈 · 제이콥 와이스버그 지음 | 신영섭 · 김선구 옮김 | 지식의날개 | 566쪽 | 값 24,000원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경제역적들이 들어라》《대한민국 생존의 속도》《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등이 있다.

고 결국은 뛰어난 경제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지경이다.

미국경제에 가장 먼저 찾아온 위기는 1995년 연말에 발생한 멕시코의 외환위기였다(루빈은 1996년 1월 초에 재무부장관에 취임한다). 그 내용을 위의 책에서 인용하자면 이렇다.

“만일 멕시코가 외채를 제때에 갚지 못하면 멕시코로부터 자본유출이 가속화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장기불황, 대규모 실업사태가 초래되면서 폐소화가 붕괴될 것이었다. 이 같은 사태는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었다. 멕시코는 미국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에 많은 미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 (중략) 멕시코 위기는 다른 나라들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국에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 (2쪽)

그러나 멕시코 외환위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국회를 지배하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편법을 동원해야만 했다. 멕시코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급보증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통령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환율안정기금(ESF)을 동원했는데, 이것은 미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용하도록 준비해둔 제도였다. 이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로 비화했고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고쳐지고 말았다. 만약 멕시코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불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미국정부가 직접 지원했거나 지불보증을 한 금액은 모두 부실채권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반발은 당연한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 외환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미국경제도 그 영향을 심각하게 받지 않을 수 없고, 어쩌면 세계대공황 때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미리 예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클린턴 정부의 업적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멕시코 위기가 진정되어가던 때인 1997년 7월에는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졌고, 이것은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번졌으며, 그 해 연말에는 우리나라 경제까지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다. 물론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극복에 있어서는 국제통화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미국 정부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위의 책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1998년 초반부터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에워싸고 의회에

서 오랫동안 부글거리던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시아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조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의회에 가서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을 더 배정해주도록 요청해야 했다.” (369쪽)

참고로,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가 미국자본의 음모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어이 없는 주장이 아직도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뒤로도 세계적인 외환위기는 좀처럼 진정되지 못했다. 1998년 8월에는 러시아 정부가 지불불능을 선언했고, 이 사태는 미국의 LTCM이라는 금융회사의 파산위기를 불렀으며, 곧이어 중남미 특히 세계 8위의 경제국인 브라질에서도 외환위기의 조짐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태들도 그런대로 무난하게 수습되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클린턴 정부의 업적은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인들의 평가는 가혹하기만 했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빼앗기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1998년에는 거의 1년 내내 의회의 탄핵위험에 시달려야 했으며, 언론으로부터도 각종 추문에 연루되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야 했다.

물론 내가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은 이런 점을 내세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경제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가를 이 책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에는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하고,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실제로 루빈은 민간금융회사인 골드먼삭스 출신이고(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공동경영인으로 올라섰다), 재무장관 퇴임 후에는 시티그룹에서 일했는데, 이런 경험도 이 책에 충실하게 담았다. 필독서로 추천할 만하다. ㉞